KWDI
해외통신

2020년 4월 1차 (2020.4.1 ~ 4.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영국 UNITED KINGDOM

영국, 교도소 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임산부 재소자 임시 출소 시행

황 수 영 브리스톨 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 영국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와 교정본부(Her Majesty's Prison and Probation Service)는 2020년 3월 31일 임산부 재소자 임시 출소 정책을 발표했다. 영국에서 교도소 내 코로나19 (COVID-19) 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임산부 재소자들을 임시로 출소시키기로 한 것이다.

- 그동안 영국 정부는 다인실에 수감된 임산부와 산모 재소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독방에 분리해 보호해왔으나 3월 31일부터 교도소 안 재소자 이동이 제한되면서 강력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없는 경범죄 혐의로 수감된 임산부 재소자들에 한해 임시 석방 정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로버트 벅랜드 영국 법무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은 임산부 재소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임시 출소 조치가 필요하다. 교도소장이 임시 출소증을 발급하면 임산부 재소자들은 자가 격리하며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하지만 모든 임산부, 산모 재소자가 임시 출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국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강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 우려가 있는 재소자들은 임산부라고 해도 임시 출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교도소는 임시 출소 후보자를 대상으로 재범 가능성, 출소 뒤 안전하게 지낼 거주지 보유 여부 등을 평가한 뒤 해당 교도소장 명의로 임시 출소 허가증을 발급한다. 임산부뿐 아니라 최근 출산한 재소자와 아기도 임시 출소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임시 출소한 재소자들이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자 위치 추적 장치를 착용하고 자가 격리해야 한다는 수칙을 위반하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엔 바로 교도소에 수감된다.

- 영국 정부는 임산부 재소자 임시 출소 외에도 경범죄 재소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가석방을 단행하고 있다. 교도소는 좁은 공간을 여러 명과 오랜 시간 공유해야 하고, 사회적 거리 유지가 어려워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경범죄자 가석방 정책은 교도소 수감자 숫자를 조금이라도 줄여 감염 위험을 낮추겠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수감 중인 남은 형기가 두 달 미만인 경범죄 재소자 4,000여 명이 가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 BBC(2020.04.04.), "Coronavirus: Low-risk prisoners set for early release", https://www.bbc.com/news/uk-52165919 (검색일: 2020.04.07.)
- BBC(2020.04.05.). "Coronavirus: Two Pentonville Prison staff members die", https://www.bbc.com/news/uk-england-london-52169957 (검색일: 2020.04.07.)
- GOV.UK(2020.03.31.), "Pregnant prisoners to be temporarily released from custody", https://www.gov.uk/government/news/pregnant-prisoners-to-be-temporarily-released-from-custody (검색일: 2020.04.07.)
- GOV.UK(2020.03.13.), "Coronavirus(COVID-19) and prisons", https://www.gov.uk/guidance/coronavirus-covid-19-and-prisons (검색일: 2020.04.07.)

- 영국에서는 교도소 내 감염이 큰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영국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4월 4일 기준으로 영국 전역 교도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소자는 모두 88명, 자가격리자는 1,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월 5일에는 60대 교도소 직원 두 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영국 교도소 내 감염이 재소자뿐 아니라 교도소 직원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 재소자 가석방은 보리스 존슨 정부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선택이었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범죄자 처벌 강화다. 지난해 총선에서 영국 보수당은 범죄자들을 "길거리에서 없애겠다"며 흉악범의 교도소 수감 기간 연장을 주장할 만큼 가석방에 너그럽지 않다. 정부가 기존의 범죄자 처벌 정책 노선과 상반되는 경범죄자 가석방 조치를 취한 것은 그만큼 영국 교도소 내 감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네덜란드 NETHERLANDS

네덜란드, 코로나19 확산으로 긴급돌봄센터 운영 등 다양한 대응정책 시행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 네덜란드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해 긴급돌봄 제공, 임산부 유선 검진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 먼저, 네덜란드 정부는 자녀가 발열, 기침과 같은 증상이 없는 경우에 한 해 현재 불가피하게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을 위해 근무시간 동안 자녀를 돌봐주는 '긴급 돌봄 센터(noodopvang)'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 물류, 쓰레기 처리, 소방관, 공무원 등 현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사람들은 출근해야 하지만 일반 유치원, 학교 등은 모두 문을 닫은 상태이기 때문에 육아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반드시 부모 양측이 현재 필수업종 종사자여야 한다는 엄격한 제한을 둔 것은 아니며,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해당하면 유동적으로 시설 상황에 따라 자녀를 맡길 수 있으며, 법에 따라 발생비용은 모두 정부에서 부담한다.

- 네덜란드에서는 임신하는 경우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거주지 인근 조산사 센터(verloskundigen praktijk)에 등록하고 배정받은 조산사(verloskundige)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출산 전까지 일련의 검사들을 받는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이러한 절차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5대 도시 중 한 곳인 우트렉(Utrecht)시의 경우, 대다수의 조산사 센터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상태이며, 상당수가 전화로 정기검진을 진행하기도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제 대면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임산부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을 사전에 이메일로 받은 뒤 진료를 보고 있다.

참고자료

- Rijksoverheid(2020.03.20.), "Vragen over noodopvang voor kinderen van ouders in cruciale beroepen of vitale processen", https://www.rijksoverheid.nl/onderwerpen/coronavirus-covid-19/veelgestelde-vragen-per-onderwerp/kinderopvang/cruciale-beroepen (접속일 : 2020.04.08.)
- RTL Nieuws(2020.04.01.), "Wat doe je als je ex een andere corona-aanpak heeft? 'Ga je zin niet doordrijven'", https://www.rtlnieuws.nl/nieuws/nederland/artikel/5074316/corona-samengesteld-gezin-ex-kind-gescheiden-ouders-maatregelen (접속일 : 2020.04.08.)

- 집에서 출산하지 않고 병원에서 하는 경우, 임산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면 정상대로 진행하지만 의료진은 평소 위생 관리 절차와 비교하면 더욱 신경 써서 마스크, 보호 안경 등을 착용하고 출산 서비스에 투입된다. 그리고 분만실에는 무조건 한 명으로 출입 인원을 제한하고 있어 대부분 배우자나 파트너 한 명만 분만실에 같이 있게 된다. 출산 후 6주 경과 시 조산사는 전화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실밥 제거와 같이 필요한 경우에만 직접 방문하고 있다.
- 이혼한 부모의 경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이혼 당시 계약한 자녀 교섭 부분에 있어 마찰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예를 들면 자녀 양육을 전담하여 기르고 있는 엄마 측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아빠 측이 아이들을 기존 동의한 횟수만큼 자녀를 만나러 오려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다.
- 만약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네덜란드 부모, 그리고 자녀들은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변화를 맞닥뜨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앞으로 네덜란드에서는 당분간 강력한 정책과 대응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 RTV Utrecht(2020.03.24.), "Zwanger ten tijde van corona: 'Meer vrouwen kiezen voor thuisbevalling'", https://www.rtvutrecht.nl/nieuws/2027885/zwanger-ten-tijde-van-corona-meer-vrouwen-kiezen-voor-thuisbevalling.html (접속일 : 2020.04.08.)

캐나다 CANADA

캐나다, 홈리스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코로나19 긴급재정 투입

김 양 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 캐나다 정부는 2020년 3월 초까지 코로나19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과 함께 급격하게 정책을 선회하였다. 3월 24일부터는 행정 명령으로 마트, 약국, 식당 등 필수적인 서비스장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사업장이 문을 닫은 상태이며,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4월에 들어와서는 더 많은 사업장이 영업을 중지한 상태이다.
- 2020년 3월 18일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820억 캐나다 달러(약 71조 399억)의 긴급재정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이 긴급재정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 개인들의 소득보전 및 세금 보조가 가장 큰 축을 이루지만, 동시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동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여성 및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예고하였다. 자택에 머물며 사회적 격리를 할 수 없는 인구들이 캐나다 사회에는 존재하며,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 최근 다른 나라들의 사례와 같이 캐나다에서도 그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근래에 캐나다 언론은 사람들이 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가정에서의 여성, 유소년 및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재정적, 육체적, 감정적, 신체적 학대가 증가추세에 있음을 보도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엄격하게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쉼터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더 큰 제약이 생겨 피해자들이 쉼터로 대피하고자 해도 되돌려 보내는 사례 또한 보고되고 있다. 홈리스 문제 또한 늘 젠더 이슈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는데, 여성 홈리스인들의 대다수가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점, 여성 홈리스 중에 젠더 폭력의 가장 큰 피해자인 원주민 여성들이 많은 점 등이 그 이유이다.

참고자료

- CTV News(2020.04.06.), "Domestic violence increases with 'stay home' pandemic response", https://www.ctvnews.ca/health/coronavirus/domestic-violence-increases-with-stay-home-pandemic-response-1.4885597 (검색일 : 2020.04.08.)
-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2020.04.04.), "Canada announces support to those experiencing homelessness and women fleeing gender-based violence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pandemic",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news/2020/04/canada-announces-support-to-those-experiencing-homelessness-and-women-fleeing-gender-based-violence-during-the-coronavirus-disease-covid-19-pandemic.html (검색일 : 2020.04.08.)

- 2020년 4월 4일 트뤼도 총리는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발표하였는데 홈리스와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긴급 지원책으로서 4천만 캐나다 달러(약346억 5천만원)가 연방 여성부(Women and Gender Equality Canada)를 통해 여성쉼터와 성폭력센터로 지원될 것이며, 2천6백만 달러(약225억)는 575개의 쉼터(violence against women shelters)로 즉시 배포될 것이라 발표했다.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4천만 달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홈리스 대책을 위한 재정으로서, 1억 5,750만 달러(약 1,372억원)의 재원이 지자체들로 하여금 홈리스인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는데 쓰이게 된다. 4백만 달러(약 34억 6천 만원)는 캐나다 여성재단의 성폭력센터(sexual assault centres)에 지원되며, 나머지 천만 달러(약 88억)는 원주민 자치지역과 유콘(Yukon) 지역의 원주민 여성들과 유소년들을 위한 46개의 긴급 쉼터에 지원된다.

- 한편, 캐나다에서는 2020년 3월 하순부터 학교와 유치원, 데이케어 등이 일제히 문을 닫게 되면서 집안에서 육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함에 따라 3월 마지막 주부터 24시간 운영하는 긴급돌봄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부모가 의사, 간호사, 긴급 구조 요원, 간병 등의 일을 하는 경우 이들의 자녀들을 위해 최소한의 돌봄 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반 가정에 대해서는 가족 지원을 시작하여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0세-12세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당 200 캐나다 달러를,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0세-21세의 자녀에 대해서는 250 캐나다 달러를 1회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 Global News(2020.04.04.). "Coronavirus: Trudeau announces $40M for women's shelters, $10M for Indigenous women and kids", https://globalnews.ca/news/6778731/coronavirus-womens-indigenous-assault-centres/ (검색일 : 2020.04.08.)
- CBC(2020.03.18.), "Trudeau unveils $82B COVID-19 emergency response package for Canadians, businesses", https://www.cbc.ca/news/politics/economic-aid-package-coronavirus-1.5501037 (검색일 : 2020.04.08.)